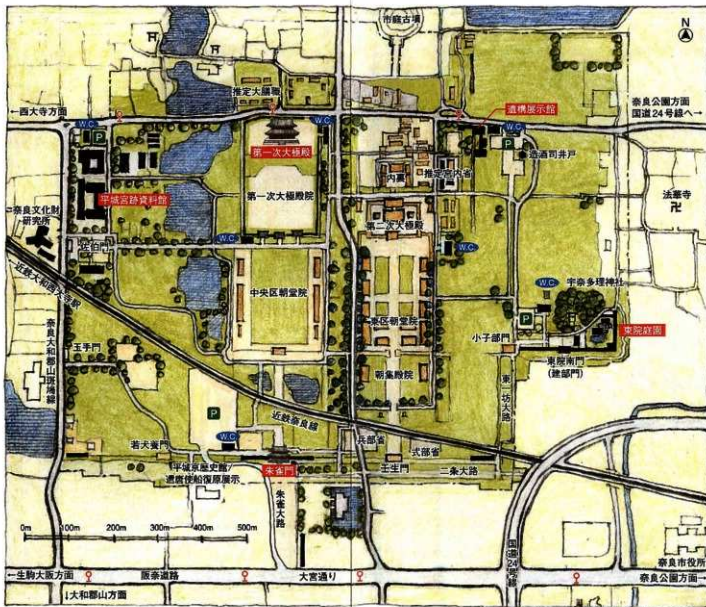




協力：NPO法人平城宮跡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

- 시설공개: 9:00-16:30<단, 입관은 16:00까지>
- 휴 관: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화요일>연말연시
- 문의: 전화 0742-30-6753
E메일 jimv@nabunken.go.jp
- <http://www.nabunken.go.jp/>



●交通: 近鉄大和郡大和駅乗15-30分 奈良交通バス: 近鉄奈良駅乗1-奈良大寺

세계유산 / 특별사적 平城宮跡 가이드

공개시설 **입장 무료**

평성궁터 자료관·유구전시관·주작문
제1차대동원·평성궁 돌출전원



独立行政法人 国立文化財機構
奈良文化財研究所

■ 平城京과 平城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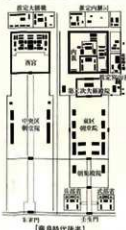
710(和銅3)년, 飛鳥(아스카)와 가까운 藤原京(후지와라쿄=奈良 藤原市)에서 奈良盆地의 北端에 새롭게 만들어진 平城京(헤이조쿄)로 도읍이 옮겨졌다.

당나라의 長安을 본보기로 설계되었는데 南北 약 5km, 東西 약 6km로 도읍의 가운데 북쪽에는 정치의 중심이 되는 「平城宮(헤이조쿄우)」이 세워졌다. 平城宮은 동서와 남북 약 1km로 大極殿(다이코우덴)과 朝堂院(초오도오인) 등의 宮殿 외에 天皇의 거주지인 內裏(다이리)가 있고 주위에는 관청이 늘어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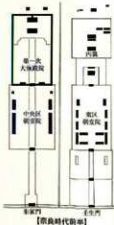


■ 平城宮은 옮겨 세워졌다

平城宮에 도읍이 옮겨진 710년부터 長岡京으로 도읍이 옮기는 784년까지의 75년간을 奈良時代(나라지다이)라고 한다. 聖武天皇이 740년부터 745년까지 孝仁京이나 羅波京 등에 도읍을 옮기지만, 그 전후에서 平城宮의 궁전이나 관청은 크게 개축되었다.



복원된 大極殿은 奈良時代 전반의 것이다. 奈良時代 후반에는 大極殿은 동쪽 구획에 있는 內裏의 남쪽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이것을 第二次大極殿이라고 부르고 있다. 內裏나 다른 많은 관청에서도 奈良時代 동안에 몇 번이나 개축이 이루어졌다. 건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의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朱雀門



平城京의 입구에는 羅城門(라조오문)이 있는데 폭 75m의 중성거리인 朱雀大路를 북쪽으로 3.7km 걸어가면 앞닿는 것이 平城宮의 正門, 「朱雀門」이다.

平城宮의 주위는 큰 담장으로 에워싸고 전부 12개의 문을 냈다. 朱雀門은 平成10년(1998)에 복원되었다.

朱雀門의 규모는 정면 폭이 25m, 측면 폭 10m, 높이 22m로 지붕은 二重이지만 다른 문보다 장대하게 만들어졌다.

문의 남쪽에 있는 광장은 朱雀大路의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바로 앞은 동서로 二条大路가 가로지르고 있다.

■ 第一次大極殿

「大極殿」은 宮殿 건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로 即位儀式과 정월 초하루의 朝賀에는 天皇의 玉座인 「高御座(다카미쿠리)」가 놓여졌다.

정면 폭 44m, 측면 폭 20m, 지붕 높이 27m로 平城宮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発掘調査의 자료와 현재 남아있는 奈良時代의 건물 등을 참고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平成13년(2001)부터 9년을 걸쳐 「平城遷都1300年」인 平成22년(2010)에 복원완성하였다.



■ 第二次大極殿과 內裏



天平17년(745), 聖武天皇은 紫雲寺에서 平城宮으로 돌아와 大極殿을 새롭게 옮겨지었다. 이것이 「第二次大極殿」이다.

이 大極殿과 남쪽 朝堂의 토단은明治까지 남아있어서 建築史家인 関野貞이 平城宮跡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在地의 庭園師인 福田嘉十郎의 생애를 保存運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第二次大極殿의 북쪽에 나무를 심어 기둥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天皇의 거주지인 「內裏」터이다. 內裏의 동쪽에 복원되어 있는 건물은 宮內省으로 추정되고 있는 관청이다.

■ 東院庭園

昭和42년(1967), 平城宮跡의 南東 모서리 부분에서 큰 庭園터가 발견되었다. 주변 일대는 東院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東院庭園」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平成7년(1995)부터 10년에 걸쳐 복원되었다. 東西 80m, 南北 100m의 부지 중앙에는 복잡한 곡선으로 洛津을 그리는 연못과 주변에 몇 동의 건물이 있었다. 称徳天皇은 이 근처에



「東院玉殿」을 세우고 宴會와 儀式을 행하였다. 지금의 迎賓館에 해당한다. 前期는 중국식 庭園으로, 後期는 일본식 庭園으로 고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 平城宮跡 資料館

平城宮跡은 奈良文化財研究所가 昭和34년(1959)부터 매년 계획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종합하여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는 곳이 「平城宮跡 資料館」이다.

건물 안에는 인포메이션, 가이드 코너, 官衙(관청 건물)코너, 宮殿코너, 遺物코너, 企画展示코너, 考古科學코너, 유지엄습, 그리고 휴게실이 있다.



■ 遺構 展示館

遺構를 발굴당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한 「遺構 展示館」으로 3棟으로 구성되어 있다. 北棟에서는 奈良時代에 네 번이나 고쳐 세워진 건물의 기둥터,



北棟과 中央棟에서는 대형 복원모형과 발굴된 큰우물, 南棟에서는 고대 벽돌을 대량으로 만들어낸 독특한 건물터를 감상할 수 있다.